6월 모의평가 '불수학'이었다

'킬러문항' 3개…국어 만점 1492명 지난해 수능의 4배

'미적분' 응시자, '확률과 통계' 첫 추월…이과 쏠림 가속

지난 1일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수학영역이 '불수학'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평 수학에는 교육부가 지목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3개가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킬러문제 배제 방침에 따라 9월 6일 치러지는 모평과 2024학년도 수능에서 수학영역은 난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평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수학은 6월 모평 기준으로 14년 만에 가장 어려웠다.

실제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1점으로, 까다롭다고 평가받은 지난해 수능(145점)보다도 6점 상승했다. 2022학년도 통합 수능 체제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6월 모평 기준으로는 2010학년도(172점) 이후 최고다. 표준점수 최고점을 획득한 수험생은 648명으로, 지난해 수능(934명)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으로, 지난해 수능(134점)보다 2점 올랐다.

지난해 수능 국어보다 소폭 어려워지긴 했지만,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이 비교적 평이했던 것으로 평가됐었던 만큼 이번 6월 모의평가 역시 까다롭지 않았던 셈이다.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는 2016학년도 이후 표준점수 최고점이 가장 낮다.

최상위권에는 오히려 쉬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6월 모평에서는 1492명이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을 받았다.

지난해 수능 당시 371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점자가 4배 증가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모평과 관련해 국어 비문학 영역이 공교육에서 배우기 어려운 내용을 다뤘다고 직접 거론하며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혔으나 채점 결과는 이와 다소 달랐다는 의미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이과 쏠림도 두드러졌다.

수학에서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 응시율(48.5%)이 인문계열이 많이 보는 '확률과 통계'(47.8%)를 통합 수능 체제를 도입한 2022학년도 이래 처음으로 추월했다. 탐구영역에서는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 비율이 48.5%로, 사회탐구만 선택한 수험생(47.7%)을 역시 처음으로 넘어섰다. 통합 수능 체제에서 점수를 받기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미적분' 쪽으로 수험생들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훈탁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 장학관은 "모평 채점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갑작스럽게 학습 패턴을 바꾸는 것은 금물이다. EBS연계 교재와 기출문제를 중심에 두고 학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수시·정시 대비 집중 대입상담 주간을 7월, 8월, 12월 운영한다. 오는 7월 15~16일 광주진로진학박람회와 고교학점제박람회도 열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노동청 '이주노동자 구제' 인권위 권고 이행을"

인권네트워크 "중과실 없을 땐 고용허가서 발급해야"

피치못할 사정으로 외국인 고용법을 지키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조치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손 부족으로 사업주들이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 행정처리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의나 중과실 없이 근로계약 기간을 넘긴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라"고 주장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이날 3개월 이내 취업하지 못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와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예시로 들었다.

이들은 기간 내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사업주 실수나 잘못된 안내로 행정처리가 잘못돼 강제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

인권네트워크는 고용허가 신청 주체가 이주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로 명기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외국인 고용법'이 적용된다. 법은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이후 3개월 이내 취업하지 않으면 강제 출국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구직등록 기간이 경과한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를 위한 구제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네트워크는 "행정상 모순이 노동자의 착오를 유발하고 이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이주노동자의 몫이다"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등 문제를 총괄하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해당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내 권익보호협의회를 개최하고 인권위 권고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여름방학 끼니 걱정 없도록…광주 남구, 급식 지원

하루 8000원…상시 접수

광주시 남구가 여름방학 동안 남구 거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급식을 지원한다.

남구는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식 제공 대상은 남구 지역에 거주하는 기준소득 52% 이하의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2170명이다. 1인당 하루 8000원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음식점·단체 급식·도시락 배달 등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급식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오는 30일까지는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남구는 지역아동센터 48곳, 다함께 돌봄센터 4곳, 도시락 제공기관 1곳을 대상으로 급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끼니 걱정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수능 '킬러문항' 홍보 학원 단속

광주교육청, 정부 대책 후속 조치

광주시교육청은 27일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사교육 시장에서 수능 킬러문항 대비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발표한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과 킬러문항 핀셋 제거'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도할 방침이다.

사교육 시장에서 수능 출제 혹은 검토위원 이력 등을 홍보 수단으로 하는 행위를 지속해 단속할 예정이다.

특정 대학 합격 현황이나 대학별 진학결과, 모의평가 및 수능성적 비교자료 등을 홍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공정한 입시 체제 구축'을 위해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광주진로진학지원단을 중심으로 모의평가 분석 및 교육부 발표 내용을 반영해 2024 수능 출제 방향을 예측, 지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광주 수능 대비 교사지원단이 출제 경향에 맞춰 자체 개발한 수능 대비 모의평가 문답지를 오는 8월과 10월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수험생을 위해 광주진로진학센터를 통해 24시간 진로진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미래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실력이 존중받는 교육이 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과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수능체제와 대입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19세 미만 술·담배 못 사요 정부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편의점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청소년 일탈 예방과 술·담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북구 '청년학교' 수강생 모집

30일까지…유튜브 콘텐츠 제작·영상편집 등 IT과목

광주시 북구 청년들로 이뤄진 '청년학교'가 오는 7월 열린다.

북구는 "강사와 수강생이 청년으로 구성된 소규모 교육 강좌 '청년학교' 수강생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강 대상은 북구에 사는 만 19세부터 만 39세의 청년으로 강좌 신청은 1인당 최대 3개까지 가능하다.

강좌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영상편집', '3D모델링', '웹디자인', '블로그 운영', 'SNS 활용', '일러스트' 등으로 IT과목 위주로 구성됐다.

강사로는 북구에서 활동하는 청년이 참여한다. 수강생은 강좌별 최대 8명까지 모집하며 무료다.

수강을 희망할 경우 30일까지 북구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열정과 재능은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 강사와 배움을 원하는 청년들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